

# 世和

www.se-hwa.hs.kr



태광그룹 일주·세화학원 자율형사립고  
세화고등학교

■발행인 | 원유신 ■발행일 | 2017. 9. 27  
TEL : (02)594-8721 FAX : (02)599-3101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56-7 (반포동)



##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세화의 역사를 돌아보다

탄생,  
변화

큰 산을 넘으며 세화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신 이임용 이사장님



▲ 1986 세화고 기공식

◀ 첫삽 뜨고 교사 완공, 현판식까지

학교 외형의 변화  
(1992~2004 VS 현재의 모습)



▲ 배수 펌프장이 있던 당시의 모습 (1992년)  
▶ 배수 펌프장이 사라지고 반포 종합 운동장이 설치된 주변 모습 (2007년)



▲ 신축 아파트로 둘러싸인 현재의 모습 (2017년)



교실의 변화(1994~2004와 현재의 모습)



▲ 책상 의자 등 모든 것들이 지금으로선 보기 힘든 모습(1994년)



▲ 현재 세화의 교실. TV를 비롯해 책상과 의자도 편리하고 좋은 것으로 바뀌었다.(2010년)

자습실의 변화



▲ 처음 자습실의 모습.  
네모난 칸막이 책상들이 빼곡한 모습이다.(1995년)



▲ 현재의 자습실. 형광등과 의자 칸막이 책상 등의 많은 발전으로 어떤 학교도 부럽지 않은 자습실을 탄생시켰다.(2010년)

옛날 교무실의 모습



▲ 옛날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었던 교무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학교의 시설 개선 및 새로운 공간 마련



학생들의 편의와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물리화학실, 미술실, 도서실, 매점 등의 탄생과 5층 증축 공사

◀ (왼쪽 위에서부터) 물리화학실, 미술실, 도서실이 생겨 다양한 활동과 문화 생활이 학교 내에서도 가능해졌다.

▼ 부족한 교실과 시설들을 보완하기 위해 5층 증축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2001년)



자율형사립고로의 전환(2010년)



◀ 2010년, 일반고등학교에서 자율형사립고로 바뀌고 나서는 제24회 입학식

학교  
행사

## 체육대회(운동회)

체육대회는 1987년 개교 이래 매년 개최되다가 2006년부터 구기 종목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 체육대회를 하는 모습. 웅기종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지금과 다를 바 없는 힘찬 학생들의 모습을 상상해본다.

**마라톤 대회** 1995년부터 단축 마라톤 대회로 체육대회를 대체하게 되었다. 2006년~현재는 다시 구기 종목 중심의 체육대회가 실시되고 있다.



▶ 서울대공원 외곽도로에서 단축 마라톤 대회를 하는 모습이다. 1등을 해상을 받겠다는 의지와 즐거움이 가득한 얼굴들.



▲ (첫 번째 줄 왼쪽) 계주를 하는 모습. 아주 치열하다. 내기라도 하고 있는 걸까? (첫 번째 줄 오른쪽) 농구장의 옛 모습(흙 마당이다) (두 번째 줄 왼쪽) 철봉을 하고 있는 모습. 예나 지금이나 철봉은 누구에게나 어려웠나 보다. (두 번째 줄 오른쪽) 시상식



**극기훈련**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으로 자신을 극복하는 체험을 하기 위해 떠나는 험난한 극기 훈련!



▲ 용평리조트로 떠난 극기훈련. 장기자랑도 하면서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가는 모습이다.(1998년)



▲ 극기 훈련하면 빠질 수 없는 체력 단련! 어렵고 힘든 '줄 건너기'도 가쁜히 건너가는 모습.

**수학여행, 수련회**

떠나기 전날 밤 설렘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수학여행. 그리고 우리의 정신 수련의 장 수련회……. 학교생활 중 가장 잊지 못할 추억의 행사



▲ (위) 1994년, 경주수학여행. (아래왼쪽) 2004년 제도주 수학여행 (아래오른쪽) 2010년 일본 수학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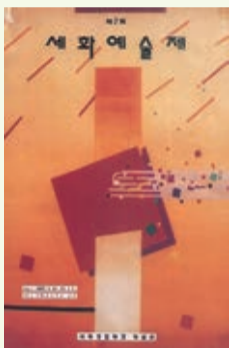
◀▲ 수련회. 모두들 마지막 날 눈물의 캠프파이어는 기억하시죠?

세화  
예술제

## 세화예술제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 1992년 제6회 세화예술제



▶ 1993년 제7회 포스터 ▲ 2000년 제14회 ▲ 2001년 제15회  
◀ 1993년 제7회 축제의 이모저모

▲ 2003년, 세화고 선배인 유명 가수 싸이(Psy)를 초청해 함께한 세화예술제.



▼ 1993년 제7회



▲ 2009년 축제. 당시 최고의 걸그룹인 '원더걸스'를 초청해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던 세화예술제

동아리

## 학교의 얼굴, 동아리 - 예전의 동아리는 어땠을까?



(왼쪽) 1993 방송반 (오른쪽) 1994 방송반  
학교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장 수고하는 동아리



▲ 신문과 교지를 편집·발행해 전교생에게 학교 소식을 전달하는 편집부. (왼쪽) 1993년 (오른쪽) 1994년



1993년 학생회 임원진



▲ 학생들의 단정한 용모와 바른 행동을 위해 선도부원들이 나선다! 늘 준비된 학생들이다.



▲ 역사동아리 ▶ 우주소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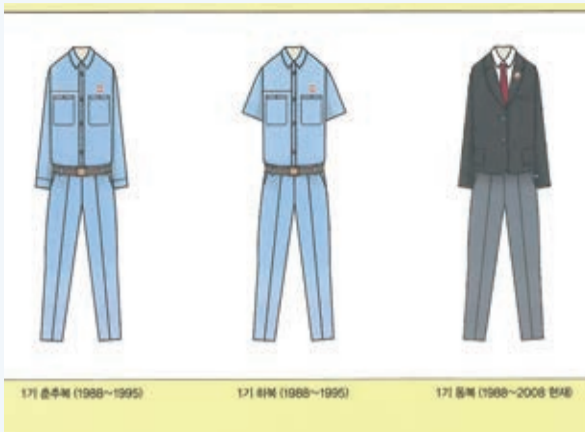
▶ 미술반



교복  
변천사

## 세화의 상징, 교복

예전 선배들의 교복은 어땠을까?



▲ 예전 선배들의 교복 디자인과 교복 착용한(오른쪽) 모습. 현재의 시각으로 보면 촌스럽지만 해가 갈수록 나아졌으니 다행이다.



▲▶ 27기 춘추복과 하복 디자인



## 세화인 방송 출연

옛날 아날로그 시절 우리 선배님들께서 나오신 TV 프로는 어땠을까?



세화고 학생들이 출연한 몇몇 방송기록을 소개한다. 옛날 방송시설이 좋지 않아도, 세화고 학생들의 지식은 늘 똑똑하고 지능은 뛰어나 대! 그 당시의 영상이 있다면 찾아서 다시 보고 싶다.(1999년)



▼ 학교로 찾아온 마당놀이



기자 2학년 신동수 / 1학년 신호준



동창회장 서주연 님(제1회)



### 자랑스러운 우리 세화고등학교의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화고등학교 총동창회장을 맡고 있는 1회 졸업생 서주연입니다.

우리 세화고등학교가 벌써 30주년을 맞이했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엊그제 배정받고 입학한 것 같은데 벌써 30주년이라니 감회가 너무 새롭습니다.

제가 입학할 때 몇 가지 기억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들은 세화여고가 남녀 공학이 되어 남학생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학교라니... 또 처음 입학할 때는 자유로웠던 헤어스타일이, 며칠 만에 두발 규정이 변경되면서 전체 스포츠형으로 시원스레 머리를 자르게 되었던 일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세화여중 건물이 처음에 남고가 사용하던 건물이었습니다. 우리가 3학년이 되면서 지금의 남고 위치로 이사를 왔습니다. 곧 남고와 세화여중이 건물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때 학교건물이 바뀐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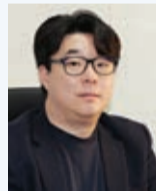
설립자이신 이임용 이사장님과 초대 문영각 교장선생님,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이춘호 선생님, 임제빈 선생님, 최석기 선생님 등 많은 선생님들, 너무나 훌륭하시고 좋은 선생님들의 기억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합니다. 선생님들의 좋은 가르침 덕분에 우리 모교가 더욱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회 졸업생으로서 벌써 개교 30주년을 맞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지만, 명문 사학으로서 우뚝 서기까지 묵묵히 30년을 지켜온 일주세화 재단과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자사고로서 선생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까지 모든 분들께서 학교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세화고등학교의 위상이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기대하고 믿고 있는 것 이상으로 잘 해 나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먼저 사회에 진출해 있는 많은 선배들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모두들 부러워하는 세화고등학교가 된 지금의 명성을 지키며 지금보다도 더 높아질 수 있게 지금의 30년보다 더 발전된 지금부터의 30년 세화고등학교의 역사가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의 자랑스러운 세화고등학교의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최고 세화! 세계 속의 최고 세화! 세화! 세화! 화이팅!

이사 신중범 님(제5회)



### 학교시절은 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

안녕하세요. 저는 세화고등학교 5기 졸업생 신중범입니다.

현재 중앙대학교 노조위원장과 국가대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세화고 총동문회에서 대외협력국장으로서 모교와 동문회의 친취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의 모교 세화고등학교 개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세화가 대한민국의 명문 고등학교로 성장할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여 주신 이사장님, 교장선생님 이하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4년 졸업을 하였으니 벌써 23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 보면 제 인생에 있어 다사다난한 과정들이 많았지만 세화고등학교 재학 시절의 3년은 아직도 생생한 '기억필름'으로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현재 그 당시 동기 및 선후배 동문들 그리고 선생님들은 '기억필름'을 떠나 다시 현실에서 마주하여 제 인생과 같이하는 행복한 '동반필름'으로 제 머릿속에 차곡차곡 갈무리 되고 있습니다.

긴 인생의 여정에 있어 고등학교 3년은 짧을 수 있지만, 3년의 시공과 동반자들은 긴 시간을 넘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Well Being 할 수 있는 균형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입시의 부담감으로 힘든 3년일 수도 있지만 내 남은 행복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임을 상기하면서 항상 최고의 하루를 만드는 그런 후배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부도, 우정도, 효도도, 운동도, 사랑도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즐기면서 행동할 때 만족할만한 미래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uild Up Your Confidence!



초대 동창회장 김용민 님(재회)

## 훗날, 세화의 졸업생임이 자랑스러울 때 후배들을 위해 그 고마움을 돌려주세요



### 간단한 자기소개 / 졸업년도

1회 졸업생 김용민입니다. 90년에 졸업하여 서울대학교 공업화학과를 91년에 입학하였습니다.

지금은 복합문화공간을 설계/기획 및 시공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에 5년간 초대동창회장을 했었습니다.

### 기억에 남는 세화고 추억

저는 학교 다닐 때 학교축제가 가장 기억에 납니다. 여고와 남고의 접점이 별로 없었던 시절이라 그나마 축제 기간이 여고생과 남고생이 합법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나가는 여고생에게 물풍선 던지기가 거의 유일한 여고생과의 접촉방법이었지요.

그런데 호수제가 있을 때면 남고의 밴드부 공연에 여고/남고 할 것 없이 모여서 축제를 즐겼었습니다. 그 당시에 음악을 하던 친구들이 많지 않아서, 기타 하나 들고 한 두 소절 노래를 할 때면 엄청난 환호성이 있었습니다.

나도 밴드를 하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여

튼 남녀공학 아닌 남녀공학 같은 학교분위기 때문에 생겼던 추억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 기억에 남는 선생님

선생님들은 정말 제가 한 분을 꼽기에는 죄송할 정도로 너무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뿐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꼽으려면 역시 1학년 담임 선생님인데요. 제가 안 좋은 일로 학교에서 정학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 때에도 끝까지 저를 위해서 학교와 대화해주시고 저의 편에 있어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1학년 때 여고 보건선생님과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반친구들과 다같이 결혼식에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졸업하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제가 동창회장을 하던 시절, 저에게 술 한 잔 하고 싶다고 하셨었는데 제가 바쁜 일정으로 시간을 만들지 못해 고마운 선생님과 술 한 잔 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제 편이셨던 윤석진 선생님!! 술 한 잔 모실게요! 뵙고 싶습니다!!

### 30주년 기념 축하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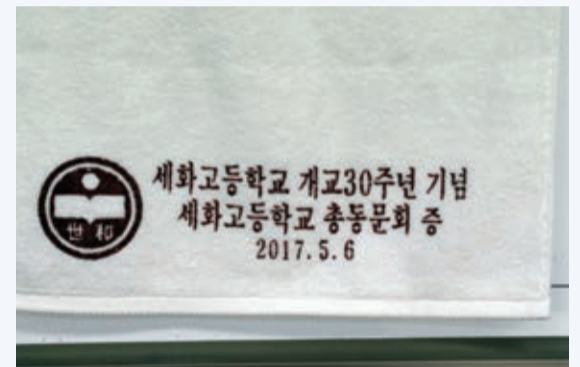
세화고 개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1회로 입학했을 때만 해도 처음 생긴 학교라 부모님

들이 걱정도 많이 하셨었는데 이제는 선배도 많고 명문으로 자리잡은 세화고등학교가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저희가 다닐 때만 해도 “세화여고 부속 고등학교”라고 놀림을 받았었습니다만 이제는 능름하게 일주세화학원을 이끌어가는 학교로 자리매김된 듯하여 제가 다 뿌듯합니다.

사회에 나오시면 세화를 졸업했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학교를 위해 여러분의 고마움을 되돌려주세요. 그것이 더 멋진 세화를 만드는 우리의 전통이 될 것입니다.



동창회에서 준비한 30주년 기념 타올

## 세화를 거친 모든 학생들은 우리의 제자입니다

### 최석기 선생님

#### 담당 과목과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음악과 최석기 선생님입니다. 개교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근무하였고 음악 교과는 항상 혼자 담당하였으니 세화를 거친 모든 학생들은 나의 제자^^



#### 세화에서 30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각이 여 삼추”란 말처럼 한 시간 한 시간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었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니 세월도 순간이란 생각이 듭니다. 세화인 여러분, 영원을 순간처럼 또 순간을 영원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 30년 동안 가장 인상 깊은 해는 어느 해인가요?

1987년 개교 첫 해이자 세화 부임 첫 해입니다. 선생님이 모두 20명이 되질 않아서 일도 많았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새 학교의 발전을 위해 모두 힘써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가 있으시다면?

백승은 학생. 제가 지도했던 동아리 “빛 소리”의 3기 기장이었던 학생으로 리더십이 뛰어나고 항상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던 친구인데 의경 복무 중 성폭행 위험에 처한 여성을 구하려다 폭력배에게 각목으로 머리를 맞아 기억 상실에 걸렸다가 극적으로 회복된 적이 있을 만큼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을 가졌지요. 졸업 후에도 꾸준히 연락하고 찾아오는 제자 중 하나. 현재 미군 군목으로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 초반과 다른 학교의 모습과 분위기는?

초반 학급당 학생 수가 60명이 넘었고 지금 시각으로 보면 권위적인 시대였지만 그래도 사제 간에 인간적 유대와 존중이 있었지요. 지금은 너무 개인의 성취에 매몰되어 사제 간, 급우 및 선후배 간의 인간적 유대감이 사라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아직도 미흡하겠지만 여러 분야에서 학생 개개인의 선택과 자율을 존중하는 분위기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변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자 2학년 김석진

### 이춘호 선생님

#### 담당 과목과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세화여중에 근무하다 세화고가 개교할 때 부임하여 지금까지 국어 과목을 맡아왔고 현재 1학년 국어와 진학지도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 세화고등학교에서 30년간 교직생활하신 감회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감회, 글썄 그냥 생활하다 보니 세월이 흘러 30년이 되었고 내가 잘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준 선생님들과 세화 졸업생, 재학생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 30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해는 어느 해인가요?

개교 때가 가장 힘들기도 했지만 보람도 있고 학생들과의 추억도 가장 많은 인상 깊은 해인 것 같습니다.

#### 30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는 누구인가요?

1회 졸업생들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첫 입학, 첫 졸업 다른 추억의 학생들입니다. 그들도 고생도 많이 했고 지금은 상상 안 가겠지만 학교 전통을 만들기 위해 서로 고생을 많이 했죠. 그 학생들이 지금 사회에서 자리 잡고 연락들도 많이 하고 있어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들인 것 같습니다.

#### 초반과 다른 학교의 모습과 분위기는?

격세지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정말 다른 세상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모든 것이 다 좋아졌고 좋아지고 있죠.

그런데 방중에 가까운 자유로움, 너무 나만 생각하는 태도는 우리 세화 학생들이 고쳐야 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2학년 권태혁

### 임제빈 선생님

#### 담당 과목과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다른 학교에 있다가 1987년 세화고가 설립된 해에 부임하여 지금까지 수학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임제빈입니다.



#### 세화 30년 근속 선생님이로 선정되신 감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30년 동안 힘들고 어렵고 즐거움이 가득했지만 인생의 한 장의 추억과도 같습니다. 지금 여러 선생님과 학생들과 이 순간을 공유한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 30년 동안 가장 인상 깊은 해는 어느 해인가요?

첫 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지금처럼 기틀을 잡지 못해서 한 선생님이 1인(多)역을 하고 정신없이 보내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냈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학생들의 이름과 번호까지 기억이 날 정도입니다.

#### 30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가 있나요?

90년 후반에 저희 반에 전교 1등과 옆 반에 전교 2등이 항상 선의의 경쟁을 했습니다. 그 전교 2등하는 친구는 항상 시험이 끝나자마자 저희 반에 와서 전교 1등 학생의 점수를 물어보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전교 1등을 한 번도 못했지만 수능 보는 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겼다고 좋아하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전교 2등 학생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통해 검사로 있고, 올해는 하버드대로 연수를 가 있습니다. 그 때의 전교 1등과 2등 학생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 초반과 다른 학교의 모습과 분위기가 있다면?

과거에는 선생님들의 노력과 관심으로 여러 학생들의 인생을 ‘바꾼다’고 할 정도의 변화를 기대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학생들의 개성이 너무 강해서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 앞으로 기대되는 세화고의 모습은?

교사, 학생, 학부모가 모두 좋아하고 가고 싶은 학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자 2학년 김민준



1회 고영훈 님



##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성숙한 인간으로 살아갈 운명, 세화인

### 간단한 자기소개 / 졸업년도

세화고 1기 고영훈입니다. 90년에 서울대 미대 입학했고 미술을 전공한 화가인데, 지금은 <인공지능과 미래 인문학> 저자로서 대중강연가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기의 교육과 문화에 대한 강연을 매년 50회 정도 합니다.

### 기억에 남는 세화고 추억

1학년 때 시험지 도난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 공모자 중 하나였죠. 시험공부를 하다가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농담처럼 주고받은 대화 중에 교무실에서 시험지를 훔쳐 미리 보자는 대화가 나왔습니다. 그때 약 7명 정도가 즐겁게 그런 농담을 했지요. 전 집에 갔는데, 며칠 후 인가? 몇몇이 정말 실행에 옮겼던 겁니다. 헐~~~~

그 시험지를 당시 회장도 미리 풀어주고 했는데, 사건이 커졌지요. 제 기억으로는 최초로 그 생각을 한 놈이 저였다고 생각됩니다. 전 그저 다양한 상상놀이를 하는 예술가적 기질의 농담이었는데, 의외로 실행력이 강한 친구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10대였으니까요^^;;; 징계 받은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가 최초의 발언자였으니까요.

1학년 7반 배정을 받았는데, 44번인 친구가 있었어요. 종양에 걸린 친구였을 겁니다. 학교를 1주일도 다니지 못하고 병원에 갔는데, 이후 하늘로 먼저 갔습니다.

그 친구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당시 전 7반 반장이었습니다. 젊은 국어선생님(전교조 관련? 성함 생

각 안나요;)은 잠깐이라도 같은 반이었는데 왜 조문을 안 갔느냐고 나무라듯 공개적으로 꾸중을 했습니다. 전 감당 못할 슬픔의 현상이 두려웠습니다. 전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컸습니다. 자라면서 느낀 것은 다른 사람이 그 기억을 다시 하도록 묻지 않으면 좋겠다는 거였죠.

대학 친구가 해수욕장에서 죽었을 때에도 그 어머니께 못 갔습니다. 같은 이유였어요. 50세에 가까워지니 지금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한 두려움이 없거나 약해졌습니다. 거리가 멀더라도 가끔씩 가족을 잃은 이들을 위로하러 찾아다닙니다.

87년에 1학년 7반 44번이었던 그 친구의 무덤에 가서 기도하고 싶습니다만, 그 친구의 가족을 만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감당이 안 될 듯합니다. 여전히 그렇게 그 슬픔의 바다가 고요해질 바라기 때문입니다.

세화여고 1년 선배 중에 저와 동갑인 '소병수'라는 특이한 이름의 소녀가 있었죠. 제가 버스 안에서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그녀의 교회도 따라가고 집에도 가고 했지요. 그녀는 절 그냥 동생취급만 했어요. 전 사귀자고 여러 번 말했을 겁니다. 소용없었죠. 중간고사 기간에 집에 가면서 여고를 향해 그녀의 이름을 여러 번 불렀습니다. 이름이 남자 이름이라 거의 모든 아이들은 제가 남고 애를 부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청소시간과 점심시간에도 여고를 향해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답 없는 외침;;;

당시 시험을 보던 여고생들께 사과드립니다. 시험 중 시끄럽게 하던 놈이 바로 저입니다. 저 때문에 문제풀이에

지장을 받으신 여고 선후배 및 친구들께 미안합니다.

### 기억에 남는 선생님

2학년 담임 선생님이 박흥규 쌤이었죠.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 쌤은 또래들보다 한두 살 많은 제게 조용히 인생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지요. 고등학생에게 말하지 못할 고민들이었습니다. 많이 외로웠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돌아가신 선생님의 나이가 되었는데, 유족들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 30주년 기념 축하인사

우리 세화인은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성숙한 인간으로 살아갈 운명입니다. 영어와 수학은 포기해도 좋지만 세화인의 운명인 '세화'는 포기하지 맙시다!

### 세화고 시절 사진, 현재 사진

저 1학년 시절 매주 월요 조회 시 애국가와 교가 지휘자였어요. 학생회 부회장이었구요. 2011년 제 화실에 붙어 나서 학창시절 앨범 3권이 소실되었어요;;; 옛 사진이 없죠;;; 아마 앞에서 지휘하던 옛 사진이 있거나 어디 수학여행 등에 가면 앞에서 노래를 불렀으니 1987년 학교 행사들 사진 중에서 저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귀찮겠지만 하나 찾아주시면 제게는 유일한 학창시절 사진이 될 것입니다;;^^

위의 제 사진은 지난 겨울에 찍은 최근 사진입니다.

기자 1학년 지준환

1회 임동혁 님

##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고교시절을 보내시길...



안녕하세요. 세화고 개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세화고 1회 졸업생 임동혁입니다.

서울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치과교정학 전공으로 현재 인천 부평에서 여러 선후배들과 함께 공동개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화고에 처음 입학했을 때는 선배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이랄까, 우리 학년만 동떨어진 느낌에 동기들 모두 외로움을 느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1회라는 자부심도 있었고, 선생님들께서도 열정으로 우리를 대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학교의 동일 학년들이 받아보지 못한 사랑과 관심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담임선생님이셨던 김병렬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납니다. 검도로 다지신 다부진 체격과는 달리 눈빛은 자상하시고, 우리를 여러모로 배려하는 마음이 강하셨습니다. 방학 중에도 반 아이들을 불러 모아 축구도 하고, 자칫 무기건조하기 쉬운 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둘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셨습니다.

1987년, 1학년 때는 정치적으로 혼란을 많이 겪었던 시기라서 운동장에서 체육, 교련수업을 할 때면 최루탄 냄새에 종종 수업이 어려울 때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학년에서의 추억이 제게는 소중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1학년 때 수학여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상도 출신 친구와 전라도 출신 친구 각각 1명이 공동으로 사회를 보고, 장기자랑으로 펼쳐진 락밴드 공연에 열광하고, 학업을 제쳐두고 친구들과 함께한 3일간의 기억은 지금도 가끔씩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을 때 아주 거리 이야기로 종종 등장합니다.

30년에 걸쳐 세화고등학교가 명문학교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누구 하나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 학년, 학생들의 열정과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가르침, 학부모님들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세화고를 거쳐 사회 각 분야에서 중형무진 활약하고 있는 여러 선배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앞으로 다가올 여러분의 미래와 반갑게 인사하고, 세화고등학교 학생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대학입시라는 문은 그저 지나쳐 열고 나아갈 하나의 관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학 졸업장이 사

회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후 사회의 넓은 운동장에 나와서는 여러분이 길을 만들고, 집도 짓고, 정원도 가꾸는 것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이 대학입시에만 너무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쓸쓸함이 한전에 자리하지만,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은 결국 여러분이 짚어지고 가야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여러분이 공부만 잘하는 기계가 되길 결코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공부하는 방법,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나갈 바라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피땀흘려 공부하는 하나의 이유임을 깨닫고, 주어진 현재의 위치에서 각자의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세화고 개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명문 사학의 하나로 더욱 굳건한 위치에 서길 기대해 봅니다.

기자 2학년 김정모





## 2회 원호신 님



# 긍정 마인드, 무한한 도전정신 일류 세화인

### 간단한 자기소개 / 졸업년도

1991. 2. 세화고등학교 2회 졸업 / 1996.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2002. 4. 판사 임용 / 2017. 현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기억에 남는 세화고 추억

1989년 4월 1일로 기억됩니다. “더부살이 주제에 운동장이 왜 말이나?”라는 피켓을 들고 세화여고생들 전원이 운동장에 몰려나와 시위 아닌 시위를 했습니다. 운동장 2개를 세화고 학생들이 온통 축구공과 농구공 등으로 점령을 했으니, 세화여고생들의 불만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운동장 절반을 양보하였고, 후일 여고 학생들과의 동창회에서는 즐거운 추억으로 회자되었습니다.

### 기억에 남는 선생님

권석형 선생님 (국민윤리, 고3 때 담임 선생님)

### 30주년 기념 축하인사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세화고등학교 개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가 입학할 때만 해도 1회, 2회 입학생들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어엿이 한 세대가 지나 국내외 각지 다양한 지역에서 수많은 세화인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가 합심하여 ‘우리 학교의 전통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는 자세로 학업에 정진하고 긍정 마인드로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후배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긍정 마인드와 무한한 도전정신으로 자기 자신을 원하는 목표에 올려놓을 수 있는 일류 세화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자 1학년 신호준

## 3회 정광명 님



# 주목받는 인재의 산실이 되기를

### 간단한 자기소개 / 졸업년도

저는 세화 3회 졸업생으로 1989년 3월부터 1992년 2월까지 세화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선생님들의 훌륭한 지도 덕분에 199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입학하고 1997년 졸업한 후, 1997년에 제41회 행정고등고시를 합격하여 1998년부터 공직 생활을 시작하여 현재 헌법상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 3급 과장으로 재직중입니다. 특히, 저는 고등학교 때 학생회 간부로 활동한 후, 대학시절에도 동문회 회장으로 활동한 바 있고, 이후 총동문회 결성에 애정을 갖고 현재 총동창회 감사로 활동하고 있는 세화맨이라고 자부합니다.

### 기억에 남는 세화고 추억

저는 1990년도 2학년에 처음으로 직선제 부회장으로 당선되고 여러 급우들과 함께 학교발전을 위해 어떻게 하면 명문 고등학교를 만들 수 있는가 고민도 하고, 그 해 학교 가을 축제를 성공적으로 잘 끝내서 크게 보람을 느꼈습니다.

### 기억에 남는 선생님

지금 박기혁 교감선생님이 그 당시 학생회 담당이셨던 기억도 생생하고, 고3 담임 선생님이셨던 노동표 국어선생님께서 인생 진로 상담을 잘 해주시고 힘을 주신 덕분에 대학에 합격하고 현재의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모교 선생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 30주년 기념 축하인사

저는 세화의 드문 최고참 행정부 공무원으로서 1992년 졸업 이후 25년간 사회생활을 하면서 선배가 적은 신생고등학교의 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개교 30주년인 지금에는 모교가 전국적으로도 다니고 싶은 명문 고등학교가 되고, 각계에 정말 훌륭한 동문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이 좋은 분위기를 선배들이 합심해서 더욱더 멋진 명문 고등학교로서 한국이 주목하는 인재의 산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화 파이팅!!!

기자 1학년 신호준

## 4회 천동일 님



# 지나고 보니 더 좋은 학교로 자긍심을 줍니다

### 간단한 자기소개 / 졸업년도

1993년 4회 졸업입니다.(1974년생)

###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세화고에서의 추억이 있으신가요?

추억이라기보다 당시에는 선생님들께서 핫 아이템(사랑의 매) big user인 분들이 다수 있으셨음 ^^ 따라서 이에 대한 추억(?) 혹은 기억들이 있음. 본인 혹은 제3자들이 여러 종류의 아이템들에 희생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전쟁(?) 후 살아남은 희열 및 강인한 정신력이 길러질 수 있었음 ~~~

###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계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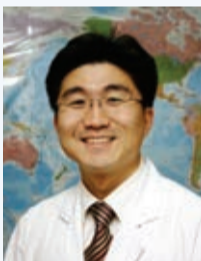
아이템 big user 샘들이 주로 기억이 납니다.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존재하였으나 그냥 맨손을 사용하신 선생님들 위주로 기억이 남. 얼굴은 또렷한데 성함은 잘.....

### 세화고등학교 30주년 기념 축하인사

요즘 여러 가지로 학교가 많이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평준화가 된 요즘에 고등학교로 자긍심을 가지기는 쉽지 않은데 세화고는 그 자체로 자긍심을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고 보니 더 좋은 학교 같습니다.~~

기자 1학년 김승주

## 4회 유병욱 님



# 대한민국 리더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 간단한 자기소개 / 졸업년도

1990년 세화고 4회 입학, 1993년 세화고 4회 졸업(반포초등, 반포중 졸업). 1979년부터 지금까지(해외 거주 기간을 제외하고) 구반포 주공아파트에서만 살고 있는 반포 사람입니다. 현재 2남 1녀(2남도 반포 초등학교, 1녀 반포어린이집) 도 심지어 반포에 있는 교육기관에 있네요^^

### 훌륭하신 선생님들

지금도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1990년 3월~1993년 2월 학생 유병욱을 위하여 사랑의 매와 꾸중을 진심을 담아 주시던 선생님이 그림니다. 수학여행때 음주(?) 오해 사건 등으로 반장들이 대표로 빠빠^^을 맞았던 일, 수학시간에 문제 늦게 풀어서 말미잘이 되었던 일들, 교련시간에 집체 훈련받던 것들, 한자 공부 천자문(?) 쓰기 공부하던 일들 진짜 천자를 몇 번 썼답니다. 그림네요. 아직도 가끔씩 연락드리는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선배님들과 나보다 더 뛰어난 후배님들과 같이 했던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추억은 즐거움이 가득하고 물리반 동기들과 가끔씩 떡볶이 먹고 오락실 가던 토요일 오후, 대학입시 준비하면서 밤 10시 30분까지 체육관 아래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체육관에서 운동하던 배구부 여고생들의 기합 소리들... 학력고사 전기에 떨어지고 나서 4주간 다시 후기 입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겨울방학 빈 도서관에서 서로의 슬픔을 도닥이면서 공부했던 동기들과 딱히 의무도 아니신데 겨울밤 같이 앉아서 자율학습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 기억에 남는 선생님

지금도 젊으시지만 영원한 나의 담임 선생님 박기혁 선생님. 당시 대우자동차의 르망새 차를 타고 등교하셨던 모습, 젊은 나이에 아버님을 일찍 여의고 슬퍼하시던 모습, 대학입시 준비 중에 성적이 나오지 않던 나를 격려해주시던 모습, 사회에 나가서 하루 하루 살면서 잊혀질 것 같은 고등학교 생활에 많은 부분을 함께해주신 나의 고1 때 담임 선생님...

### 30주년 기념 축하인사

세화고가 30살이 되었네요. 이제 사회에 지대한 공헌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네요. 우리 대한민국에 봉사할 수 있는 인재를 교육하는 2100년에도 대한민국의 리더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요. 최고를 위해서 일하고, 최고들만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함께 세상을 화합하자는 세화의 뜻처럼 모두 같이 하면서~

기자 1학년 신호준



## 5회 박중현 님



## 운동장 벤치에 무리지어 앉아 세화여고를 바라보며 점심을 먹던 우리들의 시절

### 간단한 자기소개 / 졸업년도

현재 삼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인 박중현입니다. 제5회 졸업생(1994년 2월 졸업)이니, 졸업한 지 20년이 더 지났네요.

### 기억에 남는 세화고 추억

점심시간마다 무리지어 운동장 벤치에 앉아서 세화여고를 바라보며 식사하던 날들이 아련하네요. 또, 매년 체육대회 때 학급별(반) 대항전(핸드볼, 농구, 배구(각각 1,2,3학년))이 있었는데, 경기를 앞두고 승부욕이 발동하여 같은 반 친구들과 열심히 연습하던 추억이 생깁니다.

### 기억에 남는 선생님

박기혁 선생님(국어) : 선생님들 중에 가장 어린(young) 선생님이요 당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었죠. 박기혁 선생님은 학생들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탁월한 관찰력으로, 답답이 아닌 학급조차도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특징을 기억하시고, 개별적으로 많은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한편, 제가 재학 중에는 얼굴에 trade mark셨던 '점'이 있으셨었는데, 애정 어린 학생들이 하나 둘 졸업하면서 없어지셨나봅니다 ^^:)

전신길 선생님(수학) : 저의 2학년과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셨습니다. 수업시간에 B("배불뚝이")를 치환 문자로 사용하셨었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명강의! 그리고, 부드러운면서도 단호한 카리스마로 저희 반을 항상 Best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 30주년 기념 축하인사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고등학교, 우리 세화고등학교의 30주년! 우리 모두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은 3년의 시간이 흐르면, 누구나 고등학교를 떠나지만, 항상 그 자리를 지키시며 혼신의 열정과 올바른 가르침을 주신 우리 세화 선생님들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50주년, 아니 100주년을 상상해보면서, 지난 30년보다 더욱 빛나는 세화, 세화인으로 성장하도록 각자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합시다!

마지막으로, 재학생 여러분! 길게 느껴질 수도 있는 3년이라는 '짧은' 고교시절, 꿈과 희망의 나래를 활짝 펴십시오!

기자 2학년 권태혁

## 6회 이창석 님

### 간단한 자기소개 / 졸업년도

안녕하세요. 저는 이창석이라고 하고요. 6기이고 1995년도 졸업했어요. 1995년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 입학했고요, 2001년도 졸업해서 2004년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지냈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보철분야(인공치아를 만드는 과목이에요)를 공부하고 와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는 서울시청 근처의 아버지 하시는 치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기억에 남는 세화고 추억

먼저 이렇게 되문고 싶어요. 후배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시절을 추억을 쌓으면서 보내고 계신가요? 쉬는 시간마다 도시락 까먹던 기억(아마 여러분들은 학교 급식을 먹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재미났던 추억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학교 지하 1층엔가 있었던 커피자판기 근처에서 혹시 세화여고 학생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기웃거렸던 기억(그 때는 여기를 만남의 광장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등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저에게 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인상 깊었던 기억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몰입'을 느껴본 거라고 말하고 싶어요. '꼰대'의 잔소리라고 말할 지도 모르지만, 제 인생에서 고3때만큼 진지하고 순수하게 집중했던 때가 없었던 거 같아요. 덕분에 고1때보다 고2때, 그리고 고2때보다 고3때 성적이 더 좋아졌었고, 그 때의 기억들과 그 때 느꼈던 성취감들은 제게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저에게 큰 위안이 되곤 합니다.

### 기억에 남는 선생님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이춘호' 선생님을 꼽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제 성적은 고등학교 기간 내내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쓰다 보



니, 계속 제 '자랑 글'을 쓰고 있네요.) 그리고 고3 막바지에 '피크(peak)'를 찍었습니다. 한국일보 주최 경시대회에서 상도 받았고, 수능직전 본 모의고사에서 제 최고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고만장해서 었을까요. 수능 본시험을 터무니없이 망쳐서, 점수가 수능 직전 본 모의고사보다 20점 이상 떨어져 버렸어요. 성적표를 받던 날, 너무 분하고 창피해서 '왈카'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그 때, '이춘호' 선생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안아 주셨던 것 같기도 하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셨던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둘 다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때 선생님의 진심 가득한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내서 '본고사'를 치를 수 있었고, 무사히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저희 때는 내신과 수능, 그리고 본고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본고사 비중이 제일 컸었습니다.) 저는 '이춘호' 선생님한테 감사드릴 일이 좀 있습니다. 수능 망친 다음에, 저희 어머님께도 전화하셔서 '창석이 믿어보시라.'며 격려도 해주셨고, 제가 몸도 약한 편이었고, 밤잠도 너무 많아서, 저 혼자 집에서 조용히 공부하고 싶다고 조르니까, '야자'(야간자율학습)도 고민하시다가 빼주셨습니다. 항상 마음 속으로만 감사하고 생각하고 연락도 안 하고 살고 있었는데, 몇 년 전에 학교 체육관에서 동창회하다가 마주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계속 계시면 좋겠는데, 내년에 정년퇴임하신다는 얘기를

## 몰입과 성취감을 느껴본 나의 고교시절

들었습니다. 지면을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그리고 건강하시라고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 30주년 기념 축하인사

짧게 쓰려고 했는데 글이 쓸데없이 길어지고 말았네요. 학교에 관해서 사실 저는 두 가지 점에서 놀랐습니다. 예전에 저를 가르치셨던 선생님 중에 아직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는 점, (아마 저 다닐 때는 한창 열기 넘치셨을 테지요.) 그리고 학교 진학률이 어마어마하게 좋다는 점입니다. 단순 수치로만 따지면, 저희 때랑 비슷한 거 같은 한데, 학생수가 저희 때의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비율로 따지면 저희 때보다 2배는 더 잘하고 있는 거지요. (후배님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세화고가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지만,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 좋은 성과, 더욱 더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학교', 주변에서 '너도 나도 가고 싶어 하는 학교'로 계속 성장해 나가기를 졸업생의 하나로서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부족한 힘이지만 저도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세화고 화이팅 !!

### 세화고 시절 사진, 현재 사진

세화고 때 사진은 잘 나온 게 없네요.^^; 위의 사진은 제가 진료봉사 갔을 때 누군가 찍어 준 사진입니다.

기자 2학년 신동수



개교 30주년 기념 걷기대회

## 개교 30주년 기념 '세화 한마음 걷기대회'

2017년 5월 8일, 세화고등학교 개교 30주년 기념 '세화 한마음 걷기대회'가 열렸다. 세화고등학교는 1987년 3월 개교 이래로 올해 3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하여 전교생이 기념 티셔츠를 입고 한강 공원을 따라 여의도에서 학교 까지 걸어가는 걷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1학년들은 입학 후 첫 공식적인 야외 활동으로서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으며, 2학년과 3학년들은 반복적인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개교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걷기대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기자 1학년 김승주

학교 소식

## 본교 10대 교장으로 원유신 선생님 취임



원유신 교장선생님

개교 30주년을 맞는 올해 본교 제10대 교장으로 원유신 선생님이 취임하셨다. 원 교장선생님께서는 1981년 교단에 처음 서셨고, 1988년 우리 재단의 세화여고 국어교사로 부임하셔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 내셨다. 우리 학교가 자사고로 전환한 2010년에 교감선생님으로 오셔서 자사고의 기틀을 잡아주신 바 있으며 이후 세화여자고등학교 교감과 학교장을 역임하셨다.

한편 올해 교감선생님이 되신 박기혁 선생님은 1988년 우리 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처음 교단에 서셔서 30여 년을 우리 남학생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



박기혁 교감선생님





## 친구들과 함께 한강을 걷다

2017년 5월 8일, 세화고등학교 개교 30주년 기념 ‘세화 한마음 걷기대회’가 열렸다.

우리 학교는 1987년 3월 개교 이래로 올해 30주년을 맞아 새롭게 도약하는 세화, 발전하는 세화, 화합하는 세화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고자 한강에서 학교까지 걷는 “개교 30주년 기념 세화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하였다. 한마음 걷기대회는 그 이름처럼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과 함께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여의도에서 학교까지 걸어갔고, 선생님들께서는 그런 학생들을 인솔하시고, 참석해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더운 날 짧지 않은 거리를 걷는 학생들에게 길을 안내하시고, 물도 나누어 주시면서 행사를 보조해주셨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진행되었는데, 1부는 본 행사인 걷기였다. 학생들은 여의도 한화불꽃계단에 8시 30분쯤에 집합하여 반별 인원을 확인한 후, 걷기대회는 9시쯤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사진 속의 파란 티셔츠는 30주년 기념 티셔츠로, 전교생이 입고 걸었던 이 티셔츠는 함께 걷는 학생들의 화합된 모습을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걷기 행사는 단순히 학생들이 여의도에서 학교까지 걸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학생들은 걷는 중에 몇 가지 미션을 부여받았다. 첫 번째 미션은 교가 미션으로, 걷는 도중 선생님께서 오셔서 교가를 부르라고 하시면 학급 전체가 교가를 부르고 선생님의 확인을 받는 형식이었다. 두 번째 미션은 학교에 도착했을 때 학급별로 걸으면서 받은 생수병의 개수와 다시 수거한 생수병의 개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품격 있는 세화인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한 미션이었다.

이렇게 1부 행사는 야외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우리 학교는 한강에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열중하느라 학생들은 한강을 따라 걸어본 적이 별로 없었을 것이다. 또한 학급 친구들과 함께 한강을 걸으며, 혼자 걷는 것과는 다른 경험이 되었다. 1학년은 입학 후 첫 공식적 야외 활동으로 친구들과 더 친해질 기회를 얻게 되었고, 2학년과 3학년은 학업에서 잠시 탈출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9시부터 11시까지 약 2시간 정도 걸어 전교생이 학교에 도착한 이후, 2부 행사가 시작되었다.

2부 행사는 학교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전교생이 강당에 앉아서 세화의 역사와 관련된 영상을 시청했다. 영상을 시청한 이후 자랑스러운 세화인상을 수여하고, 학교를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일해 오신 여러 선생님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행사도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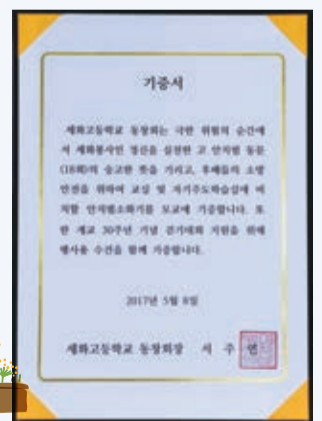
자랑스러운 세화인상은 졸업생 안치범 의인에게 수여되었다. 안치범 의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에 화재가 발생하여 위기에 처한 이웃 주민을 구하고 희생한 분으로서, 본교는 졸업생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 이렇게 화재에서 주민을 구한 안치범 동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세화고등학교 동창회는 ‘안치범 소화기’를 전달하였고, 현재도 교문 앞에 이 소화기가 놓여서 사람들은 그 자리를 오고 가며 그의 정신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다.

고교 평준화가 이루어진 이후 각 고등학교의 수준이 비슷해져 출신 고등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기 힘든 요즘, 선배들은 요즘도 세화고등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그만큼 세화는 재학생에게나, 졸업생에게나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학교이다. 이번의 한마음 걷기 대회가 지난 30년간의 세화와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갈 세화의 좋은 연결고리가 되기를 바라본다.

기자 1학년 김승주



### 걷기대회 2부 행사 이모저모



## [편집부] 편집부 최고의 장점은 긴밀한 선후배 관계

### 간단한 자기소개 / 졸업년도

현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재학중인 22기 졸업생 허정무라고 합니다. 2011년에 졸업하였으니 벌써 학교를 떠난 지 6년이 되었네요.

### 당시 편집부 활동에 대한 간단한 소개

이전에는 통상 학년 당 5, 6명 정도의 인원을 유지했지만, 제가 입학했을 당시는 한 두해 정도 편집부의 맥이 끊겼었다가 다시 정식 동아리로 복귀되었던 시기였습니다. 때문에 3학년 선배들이 없이 1, 2학년들로만 부를 꾸려갔습니다. 여름 방학 전에는 학교 신문을, 겨울 방학 전에는 교지를 내었어요. 이를 위해 인물 인터뷰, 각종 학교 행사 취재, 공연이나 박람회, 전시회 등도 자주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가끔은 친목 도모를 위해 놀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 편집부 활동 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저 같은 경우 고등학교 때 사진에 관심이 생겨 항상 DSLR을 가지고 싶었었어요. 지금도 비싸지만 고등학생 신분으로는 더더욱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의 물건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담당 선생님께서 동아리 물품으로 사용할 카메라를 하나 구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전 이때다 싶어 DSLR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

다. 어쨌든 저의 설득 아닌 설득으로 인해 DSLR 구매에 성공하였고,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카메라를 대여하여 사진을 찍고 다녔습니다. 잘나왔냐고요? 카메라는 핸드폰카메라만 만져본 사람이 될 앞겠어요! 정말 형편없는 사진들이었어요!

### 편집부만의 장점!

편집부 최고의 장점이라고 하면 역시 긴밀한 선후배 관계를 뽑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재학중인 1, 2, 3학년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졸업 후 사회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선배님들과 주기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이렇게나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PD, 요리사, 저 같은 엔지니어나 심지어는 성직자 생활을 하시는 분까지 정말로 다양한 직업군의 선배들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선배들과 단순히 형식적인 관계가 아닌 특유의 유대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크고 작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번 모임 같은 경우는 2기 선배님들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졸업한지 28년이 되었는데 애부심(愛部心) 때문에 찾아와 주는 선배들이 있는 부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장점은 단순히 수험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서 요구되는 기초적인 능력들을 배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입에 모든 것을 쏟아 붓는 현재의 인문계 고등학교의 시스템 하에선 특정 주제에 대해 주제적으로 생각하고,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글쓰기까지의 경험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과 경험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제 주변만 하더라도 이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자기 기량을 온전히 발휘 못하는 경우를 몇몇 보았습니다. 주제적인 생각, 협동성, 글쓰기 능력 모두 다 소위 말하는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전문적 지식들만큼 크게 요구되는 능력입니다. 당장은 크게 와 닿지 않았지만 저 스스로도 편집부를 통해 이런 면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 30주년 기념 축하인사

학교가 벌써 30살이 되었다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서울시 내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학교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 못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허나, 그 짧은 시간 동안 세화고등학교를 거쳐 간 수많은 선배님들은 우리 사회, 세계 무대에 크나큰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선후배님들 덕분에 세화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롭습니다. 30주년 축하합니다! 50주년, 100주년 이상 까지도 세화의 잠재력을 여과 없이 보여줄 수 있도록 합시다!

기자 2학년 권태혁 / 1학년 이동은

## [방송부] 음악 방송이 주된 활동이었던 방송부

### 방송부 28기 엄영우, 홍민혁 졸업생

#### 과거 방송부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 엄영우 · 홍민혁 】 방송부는 음악 방송이 주 활동이었습니다. 지금도 음악 방송을 계속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때는 매일 아침 7시 반까지 등교해서 음악을 틀어야 했었습니다. 학교 오자마자 방송실에 가서 미리 골라둔 클래식 음악을 틀곤 했었습니다. 클래식이라고 아무것이나 막 틀던 것이 아니라 너무 무겁지 않은, 아침에 듣기 좋은 클래식을 찾기 위해 애쓰다 보니, 방송실 컴퓨터로 유튜브에 접속하면 추천 재생 목록의 대부분을 클래식 음악이 차지했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제가 1학년 때는 청소시간에도 음악방송을 진행했는데, 아침에는 클래식을 틀었고, 청소시간에는 대중가요를 틀었습니다. 방송부원마다 DJ 이름을 나름대로 정해서 음악방송을 진행하곤 했었는데, 좋은 노래를 틀고 복도에 나가보면 간혹 노래를 따라 부르는 친구들의 소리가 들리기도 했었습니다. 청소시간마다 방송실에 갔다가 끝나자마자 8교시를 위해 교실로 돌아가는 것이 힘은 들었지만, 나름 재밌는 활동이었는데 아쉽게도 제가 2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종례 전달사항이 많아 종례를 일찍 시작하는 반들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청소시간 음악방송은 사라졌었습니다.

이외에도 학교 차원에서 진행하는 영상 교육을 할 때면 전교를 돌아다니며 TV를 켜고 채널을 맞추는 일을 했었고, 선생님들께서 방송하실 일이 있다고 하실 때는 마이크를 틀어드리는 일도 했었습니다. 오히려 동아리 시간이 차라리 편했었는데, 그 시간에는 클래식을 찾거나, 축제를 앞두고는 홍보영상을 만들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는 등의 활동을 했었습니다.

방송부 담당 선생님이신 조상현 선생님은, 글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분이십니다. 학생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선생님께서 많은 것들을 도와주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방송부에 일이 있을 때는 학생들이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도록 직접 여러 일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학교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죠.

### 선배님들이 학교를 다니셨을 때 전반적으로 학교에 대한 생각이 어떠셨나요?

【 엄영우 】 제가 학교 다닐 때도 1년 만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더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을 것 같

아 후배들이 정확히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학교를 다니는 후배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1, 2학년이던 때는 수시고사가 있던 시절이라 정말 설만하다 싶으면 돌아오는 내신 시험 기간에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했었고, 애써 좋게 표현하자면 학생들의 학업 능력 증진을 위해 많은 것들을 권장하던 학교 덕에 피곤하기도 많이 피곤하기도 했었습니다.

【 홍민혁 】 기본적으로 학교에 대한 애정이 없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학생회나 방송부와 같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학교에 대해서 애교심이 꽤 많은 상태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기본적으로 입시 위주의 학교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었지만 그것 또한 학교가 학생들을 잘 관리해 준다는 생각을 하며 지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선생님들의 실력이 매우 뛰어났었던 것이 도움이 많이 되어 좋았습니다.

### 세화고등학교 30주년 축하 메시지 한마디...

【 엄영우 】 제가 처음 입학할 때만 해도 고등학교를 졸업 할 것이라는 생각은 떠올리지도 못했었는데, 어느새 28기였던 저는 졸업을 하고 세화고등학교는 30주년을 맞았네요. 우선, 세화고의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30년을 발판삼아,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 멈추지 않고 더욱 발전하는 세화고등학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 역시 세화고등학교의 졸업생으로서 세화고의 발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0년간 세화고를 이끌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홍민혁 】 세화고등학교가 생긴 지가 벌써 30년이 되었다는 것이 참 놀랍고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0년을 맞아서 저도 졸업생으로서 매우 축하한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고, 앞으로도 더 오래 발전하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2학년 방준해 / 1학년 강중모



## [블루 아나토미] ‘해부’라는 ‘푸른 바다’...



### ‘블루 아나토미’라는 동아리 이름의 뜻과, 동아리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붉은 피만이 난무하는 해부를 지양하며, 해부하는 창을 통해 생명의 신비를 들여다보고 해부라는 푸른 바다를 향해하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뜻으로 블루아나토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 구체적인 설립시기, 설립 동기는?

2010년 생물, 의학, 수의학 등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자율적인 동아리입니다.

### 평소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평소에 몸속 구조가 궁금했던 동물들은 선정후 해부를 실행한 뒤, 해부한 결과물을 인간의 신체에 비교해 보는 활동을 합니다.

### 세화고 1등 동아리로 소문이 자자한데, 블루아나토미가 이 자리까지 오르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초창기 선배님들이 해부를 좋아하시고, 또 그러다보니 해부를 잘 하게 되어서 그 기술이 어느 정도는 전승되어 그 기술들을 따라서 하다 보니 내용면에서 좋은 부분을 계속 유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 블루 아나토미를 거쳐 간 선배들 중에서 실제 의학이나 해부학 쪽에 종사하시는 선배님들이 많습니까? 만약 있다면 구체적인 활동은 무엇인가요?

해부학 자체를 연구하시는 선배님들은 안 계시지만, 수의사나 의사가 되신 선배님들은 매년 1~2명씩 있었다고 합니다. 동아리 시간에서의 해부학 경험이 실제 해부 실습시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 해부를 하면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무엇이 있나요?

선배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해부용으로 준비해두었던 뱀이 우리를 탈출해서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는데, 다행히 일주일 뒤에 세화여고 화단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 앞으로 블루아나토미가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요즘 신입생들은 해부를 좋아해서 동아리에 들어오기보다는 블루아나토미의 이름을 보고 동아리에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동아리의 명예와 명성도 중요하지만, 초심으로 돌아가 진짜로 해부를 좋아하고 해부에 열정이 있는 친구들이 들어와서 진짜로 해부를 즐기고, 하고 싶은 해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가 되게 하고 싶습니다.

### 세화고등학교 30주년 기념 축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교의 개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2학년 김민준 / 1학년 송진권



##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로 학생 권익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화고 학생 여러분!

올해 학생회에 관련되어 크고 작은 변화가 있어 이 글을 통해 달라진 학생회 운영과 지금까지의 학생회 활동에 대한 소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매점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회 소식입니다.

전반적인 학생회 조직 외에도 학생 자치 활동도 더욱 활성화되었습니다. 작년까지 진행되었던 형식적인 학급회의와는 달리, 학급에서 주체적으로 안건을 설정하여 의결을 수렴하는 학급회의를 격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급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총무부장, 총학생회장, 생활안전부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의 결재를 거쳐 교장 선생님께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학생회는 중간 다리 역할을 맡아 면밀한 검토를 거치므로써 묵인되는 의견 없이 최대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회의 결과를 토대로 학급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대의원총회 또한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교장선생님과의 직접적인 대화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총학생회는 많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총학생회의 활동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 크게 두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교복 단속과 매점 가격 조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작년부터 학교는 '학교 주관 교복 구매'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학교 측에선 교복 생활지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사를 해 본 결과, 1학년 학생들의 경우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었지만, 2·3학년 재학생의 경우 교복 구매 안내 과정에서 제대로 된 공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총학생회에서 2·3학년의 경우 현재 착용 중인 교복은 허용하되, 교복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 학교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구매할 것을 확인 받았으며 이번 복장 생활지도와 관련된 처벌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확인 받았다고 합니다.

매점 상품가격 조정에 대한 문제는 학생회장과의 인터뷰 기사(아

래)를 통해 전해드립니다.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되어 학생들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된 것과 학교 주관 교복구매와 관련해 2·3학년 재학생의 경우 제대로 된 공지가 없었고 복장에 대한 처벌은 없을 것, 학생회가 운영하는

### 32대 총학생회장 최지훈 학생과의 인터뷰

#### 세화고의 페이스북 페이지와 매점 관련 사안 등에 대한 인터뷰

**김석진 기자(이하 김)**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최지훈 총학생회장(이하 최)** 안녕하세요, 3학년 선배님들, 2학년 학우분들, 1학년 후배님들 저는 제 32대 총학생회장 최지훈이라고 합니다.

**김** 먼저 학생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 첫 번째로 '세화고등학교 학생회' 페이지에서는 학교의 크고 작은 소식들을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높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축제 관련 공지 및 홍보와 찬조팀 모집 등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화고등학교 학생회 건의함'으로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학생 여러분들의 건의를 하나하나 소중하게 경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화고등학교 구기대회' 페이지를 통해 일정 및 변동사항과 경기결과 발표 등을 하고 있습니다.

**김** 네, 학생회에서 학생들의 의견피력 용이성과 편리성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매점 관련 사항들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 올해 들어서 매점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올랐다는 의견이 많아 저희 총학생회는 매점 가격을 조정해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초기 계약 금액보다 가격이 인상된 상품들이 매우 많

았고, 시중 판매가를 훨씬 뛰어넘는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도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총학생회는 선생님들과 함께 매점 사장님과의 협상을 통해 가격을 인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자 2학년 김석진

았고, 시중 판매가를 훨씬

뛰어넘는 가격으로 판매

되고 있는 상품도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라

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저희 총학생회는

선생님들과 함께 매점 사

장님과의 협상을 통해 가격

을 인하하고자 노력하고 있

습니다.

**김** 하루빨리 학생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매점 또한 만족할 수

있는 좋은 협상 결과 소식이 들려오길 바랍니다. 한편 학생들

이 매우 기뻐할 만한 소식이 하나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 네,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새로운 매점 이

용 수칙을 정하여 매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교실과 운동장 스탠

드에서 취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김** 벌써부터 학생들이 열광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

다.(웃음) 그런데 꼭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최** 매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특별실에서는 취식하는 행위는 금

지되어 있으며 개봉 후 이동하는 것과 이동 중에 먹는 것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벌점이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취식 후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것은

품격 있는 세화인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김** 좋은 소식 전해주시고 학생들을 대표하는 무거운 자리에서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 감사합니다.



### 기획기사

## 미세먼지, 이대로 관참은 걸까

올봄은 미세먼지의 봄이었다. 황사와 더불어 몰아치는 미세먼지의 공격은 매서웠다. 바깥은 보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뿌옇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밖에 나가면 목감기에 걸린 것처럼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났다. 사람들은 매일 기상청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였고 미세먼지가 몹시 나쁜 날에는 미세먼지 경보발령이 나기도 했다. 이처럼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는 미세먼지, 그 정체를 파헤쳐 보자.

### 미세먼지, 넌 누구냐?

미세먼지는 여러 가지 복잡한 성분을 가진 대기 중 부유 물질이다. 대부분 자동차의 배기가스, 도로 주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에서 발생한다. 미세먼지의 노출은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과 관련이 있으며 사망률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크기가 10 $\mu$ m 이하의 작은 먼지 입자들은 폐와 혈중으로 유입될 수 있으므로 큰 위험이 된다. 또한, 미세먼지는 주로 연소 입자인 탄소, 유기탄화수소, 질산염, 황산염, 유해금속 성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크기가 매우 작아서 코와 기도를 거쳐 기도 깊숙한 폐포에 도달할 수 있으며, 크기가 작을수록 폐포를 직접 통과해서 혈액을 통해 전신적인 순환을 할 수 있다.

급성 노출 시에는 기도의 자극으로 인한 기침과 호흡 곤란이 발생하며, 천식이 악화되고 부정맥이 발생한다. 만성 노출 시에는 폐 기능이 감소하고 만성 기관지염이 증가하고 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심장이나 폐 질환자, 아이와 노인, 임산부는 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영향이 더 크며, 심지어 건강한 성인이어도 높은 농도에 노출



되면 일시적으로 이런 증상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증상들은 주로 미세먼지에 의해 세기관지에 염증 반응이 유발됨으로써 발생한다. 또한, 기도나 폐에서 박테리아를 불활성화하거나 제거하는 인체의 방어 작용을 방해함으로써 호흡기계 감염을 초래하게 한다. 미세먼지에 의한 심혈관질환의 발생은 산화스트레스 및 염증 반응, 그리고 자율신경계의 장애와 혈액 응고 능력의 변화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미세먼지는 중국 탓?

우리는 미세먼지가 대부분 중국에서 날아온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2017년 1월에 보도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국내 대기질의 미세먼지 원인을 보면 중국의 영향이 40~50% 정도의 수준이다.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으로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의 영향이 최대 70%에 달한다고 한다. 미항공우주국 NASA의 조사결과에서도 중국의 산둥, 허베이, 장쑤성 등 3개의 성이 미세먼지 배출 1, 2, 3위로 꼽혔다. 이 먼지들은 북서풍을 타고 한국으로 흘러들어오게 된다. 하지만 중국이 미세먼지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국내 측면에서는 첫째, 화력발전소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화력발전소는 기본적으로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를 태우고 그 열로 팬을 회전시켜서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그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많은 대기 오염물질이 나온다. 특히 서울은 대기 오염이 심한데, 이는 충청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인접, 수도권 지역의 화력발전소가 만드는 오염물질이 많기 때문이다. 둘째, 수도권에 과밀된 인구와 자동차 등의 교통수단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정부에서는 노후화된 자동차에서 매연이 많이 나오는 것을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하며 매연 배출구에 정화기를 다는 것을 권장하고 폐차하는데 드는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는 가정에서 가스레인지, 전기 그릴, 오븐 등을 사용하는 조리할 때도 많이 발생한다. 조리 시, 음식 표면에서

15~40nm 크기의 초기입자가 생성되고 재료 중의 수분, 기름 등과 응결하여 그 크기가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세먼지는 조리법에 따라서 그 발생 정도가 다른데, 기름을 사용하는 굽기나 튀김 요리는 재료를 삶는 요리보다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며, 평소 미세먼지 농도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60배 높게 발생시킨다.

### 미세먼지 없는 학교

우리는 하루의 3분의 1을 학교에서 보낸다. 그만큼 학교에서의 생활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학교에서의 미세먼지 실태가 그리 좋지만은 않다. 또한, 등하교할 때, 점심시간에 운동장으로 나가서 축구를 할 때, 체육 시간 등 바깥 환경에 노출되기 쉽다. 그러므로 미세먼지에 대한 학교 차원의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다.

서울시 교육청은 4월 10일 '학교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미세먼지가 나쁠 경우에는 야외수업을 단축하거나 금지하고,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가급적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수업을 단축하고, 학생들이 외부활동을 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형식적이고 당연한 얘기들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정작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도 같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외부 활동을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습관만으로도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 마스크 외에도 손을 자주 씻고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갖추어 학교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에 따르면 서울 전체 초·중·고 1,339개교 중 강당(체육관)을 갖추지 못한 학교는 약 20%인 253개교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운동장으로 나가면 우리는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주일일에 두세 번뿐인 체육 시간을 교실에서 보내야 한다면 이는 남고생으로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학교 측에서 강당 사용을 허락해준다면 우리는 미세먼지가 있더라도 체육 시간을 즐기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 것이다.

기자 2학년 김영재